

거제참좋은교회, 교회창립 19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 통해 사명과 헌신 다짐”



경남지방회 거제참좋은교회(차경석 목사)가 지난 7월 5일(주일) 오후 6시 30분 교회창립 19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식은 1부 예배, 2부 안수식, 3부 권면과 축하 순서로 진행됐으며, 제2기 장로장집 2명, 제4기 안수집사 2명, 제3기 권사취임 12명이 임직받았다.

1부 예배에서 지방회장 박종렬 목사(시냇가에심은교회)는 “극한 직분”(요한복음 15: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구원)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전부)을 내어 주셨듯, 직분자는 사랑하기 힘든 상황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직분자다.”라며 모두에게 마음의 울림과 도전이 담긴 말씀을 전했다.

특히 축하 시간에는 거제참좋은교회 개척 멤버인 박용철 목사(부천참좋은교회)가 “19년 전, 본교단 교회가 전혀 없던 거제 땅, 작은 기도원에서 시작된 예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난다”고 회고하며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도들 앞에 축하를 전했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장로장집:김상인 주수길
▲안수집사:원유상 정창일
▲권사취임:박성숙 박성혜 백화숙
용재희 우미영 이윤정 이주연 이해정
정은아 조옥선 최동자 홍순영.

경남지방회주재기자 박희석 목사



서울남지방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성료 다음세대 향한 부르심…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서울남지방회(회장 박기홍목사)는 지난 6월 27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냇가에심은교회(우성훈 목사)에서 ‘2026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다.

‘WHO ARE YOU?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습회에는 지방회 소속 여러 지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석해, 다가오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다음세대 사역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했다.

강습회는 1부 예배로 문을 열었다. 서선진 전도사의 인도로 진행된 찬양과 율동은 참석한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여름성경학교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미리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총회 교육국장 임

현교 목사가 공과교육을 맡아 올해 주제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교육 방향을 짚어주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도를 제공했다.

주강사 임현교 목사는 “여름성경학교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현장”이라며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으로 부장될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습회를 통해 다음세대를 향한 사명을 다시금 새기며, 여름성경학교를 향한 기대와 다짐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남지방회주재기자 박요섭 목사

물댄동산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 성료

새로운 도약과 부흥 이끌어갈 신실한 일꾼 세워



경기남지방회 물댄동산교회(이기삼 목사)는 지난 5월 30일 교회 설립 14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이끌어갈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는 은혜의 자리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정병구 목사의 기도와 송안교회 김태호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한재환 목사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물댄동산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후 월곡교회 원주연 목사의 봉헌기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권사임직식에서 임직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위해 전심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했다. 설모안교회 조영란 목사는 임직자를 위한 기도과 이기삼 담임목사의 공포를 통해 두 명의 신임 권사가 세워졌다.

3부 안수집사 임직식에서는 푸른초장교회 김태성 목사의 안수집사를 위한 기도와 함께 안수위원들의 안수기도가 진행됐다. 4부 축하 및 권면 순서에서는 신임 임직자들을 향한 격려와 축복이 쏟아졌다. 목신교회 윤상철 목사가 임직자들에게, 이어서 차주영 목사가 교우들에게 각각 축하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임직자를 대표해 전근표 안수집사가 “주인 사명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겠다”고 감사 및 광고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서정교회 왕영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 권사취임: 정종희, 최명순
△ 안수집사:전근표.

경기남지방회주재기자 박주덕 목사

동문교회, 홍순호 담임목사 위임식

“온몸과 마음 다해 하나님과 성도들 섬길 것” 다짐



제주전도지방회 주관 동문교회 홍순호 담임목사 위임식이 지난 7월 5일(일) 오후 3시 30분 동문교회 본당에서 거행됐다.

1부 위임감사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안진 목사(신양교회)가 갈라디아서 3장 6-9절을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동문교회 여전도회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2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안진 목사지방회부회장의 집례와 정현숙 목사이호교회 원로의 위임식 기도, 박재원 목사동문교회 원로의 권면, 김원교 목사

(부천참좋은교회 원로)의 축사, 문기찬 목사(예수님의은혜교회 은퇴)의 축도로 홍순호 목사의 새로운 사역을 축복했다.

새로 위임받은 홍순호 목사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를 거쳐 부천참좋은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한 후 동문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받았다.

홍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역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맡겨진 동문교회 사역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길 것”을 다짐했다.

제주전도지방회주재기자 박성봉 목사

행복한안디옥교회, 권사·안수집사 임직감사예배 거행

교회와 하나님 나라 섬길 새 일꾼 5명 세워



강서지방회 행복한안디옥교회(박신영 목사)는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 ‘권사 및 안수집사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새 일꾼들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강서지방회 부회장 김상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주애 목사의 기도와 신한다·김기경의 특별연주, 김성숙 목사의 성경봉독(예레소서 2:20-22)에 이어, 행복한안디옥교회 신화석 원로목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진 2부 권사 안수식과 3부 안수집사 안수식은 담임 박신영 목사의 집례로 거행됐다. 임직자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과 직분에 충성할 것을 엄숙히 서약했으며, 안수위원들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 거룩한 직분을 수임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 이선영·송보영·임

희숙 씨가 권사로, 정민호·이제민 씨가 안수집사로 각각 임직해 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됐다.

4부 축하의 시간에는 행복한안디옥교회 장로부부의 축가를 시작으로, 강서지방회장 홍석영 목사와 전 지방회장 이광열 목사의 축사와 권면, 각 기관의 임직패 전달과 축하객들의 축하순서가 진행됐으며, 임직자를 대표해 이선영 권사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예배는 전 지방회장 한경상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행복한안디옥교회는 “이날 세워진 임직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을 전파와 교회 부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축복한다”고 전했다.

강서지방회주재기자 김성숙 목사

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위임식 및 이·취임예배

황선조 목사 이임·안현 목사 위임



경북지방회 진주동부교회는 지난 6월 28일(주일) 오후 5시 담임목사 위임식 및 이·취임예배를 거행했다. 영서감찰장 김용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지방회회계 한춘자 목사의 기도 후 지방회장 최정규 목사가 고린도전서 1:1-3을 본문으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2부 담임목사 위임예식은 지방회장 최정규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영서감찰회 서기 최종화 목사가 위임받는 안현 목사를 소개한 후 서약과 치리권 부여 등을 거쳐 위임목사로 공포했다. 안현 목사는 예수전도단을 통해 주를 섬기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주동부교회의 담임목사로 세움을 받았다. 가족으로는 사모와 세 자녀가 있다.

3부 담임목사 이·취임식은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격려 속에 진행됐다. 지난 20년 동안 진주동부교회를 섬긴 황선조 목사에 대한 감사, 오신종 목사와 최종화 목사의 권면, 윤규진 목사의 축사 등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와 감동과 찬양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1965년 설립된 진주동부교회는 강용조 전도사, 이원구 목사, 김금운 목사, 노윤경 목사, 김형수 목사, 황선조 목사 등 신실한 목회자들의 섬김 속에 60여 년 동안 진주에 성결의 복음을 외쳐왔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주 땅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

경북지방회주재기자 이양우 목사

구기동사랑교회,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는 감동과 기쁨의 시간 돼



부천지방회 구기동사랑교회(문태주 목사)가 지난 5일(주일) 오후 3시 새성전 입당감사예배를 1. 2부로 나누어 드렸다.

구기동사랑교회는 상가건물 1층을 임대해 예배를 드리던 중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새성전 마련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후 2층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날 새성전에서 하나님께 입당예배를 드리게 됐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값비싼 감동과 기쁨의 시간이었다.

이날 1부예배는 한미음감찰장 김용태 목사(한미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하수경 목사(맑은샘교회)의 기도, 지방회 서기 이길로 목사(좋은나무교회)의 성경봉

독에 이어 부천지방회장 박병두 목사(행복한복안교회)가 ‘주인에서 하나되는 공동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2부에는 우제루 목사(푸른초장교회)의 사회로 박현영 자매의 축가와 전 총회장 홍사진 목사(주천양교회)의 격려사에 이어 총회 서기 강명국 목사(늘사랑교회)의 축사와 정영달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구기동사랑교회는 2018년에 구기동인왕빌딩 1층에 임대로 있다가 9년 만에 같은 건물 2층을 매입하여 성도들이 앞장서서 아름답게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이날 입당하게 된 것이다.

부천지방회주재기자 이상수 목사

부천지방회, 연합금요기도회 개최

‘다시 하나님께로!’… 300여 명 참석

부천지방회(회장 박병두 목사)는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 참좋은교회(박용철 목사)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연합금요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는 고원영 목사(경안교회)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했다. 이어 지방회장 박병두 목사(행복한목양교회)의 기도 후, 서울신학대학 총장 황덕영 목사가 시편 31:9-16절을 본문으로 하여 ‘주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황 목사는 파란만장한 다툼의 인생을 주제로 한 설교로 참석한 모두에게 큰 은혜를 전했다. 이어 지방회장

박병두 목사의 인도로 합심 기도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 나라와 정치, 사회, 경제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와 민족의 복을 위해, ■ 예성 총회와 신학교를 위해, 부천지방회와 지교회의 부흥을 위해, ■ 다음세대와 자녀세대의 복음화를 위해 각각 연합으로 기도한 후 전 총회장 김원교 목사(참좋은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부천지방회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성도들의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연합으로 기도회를 가져 왔으며 기도회 때마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왔다.

부천지방회주재기자 이상수 목사